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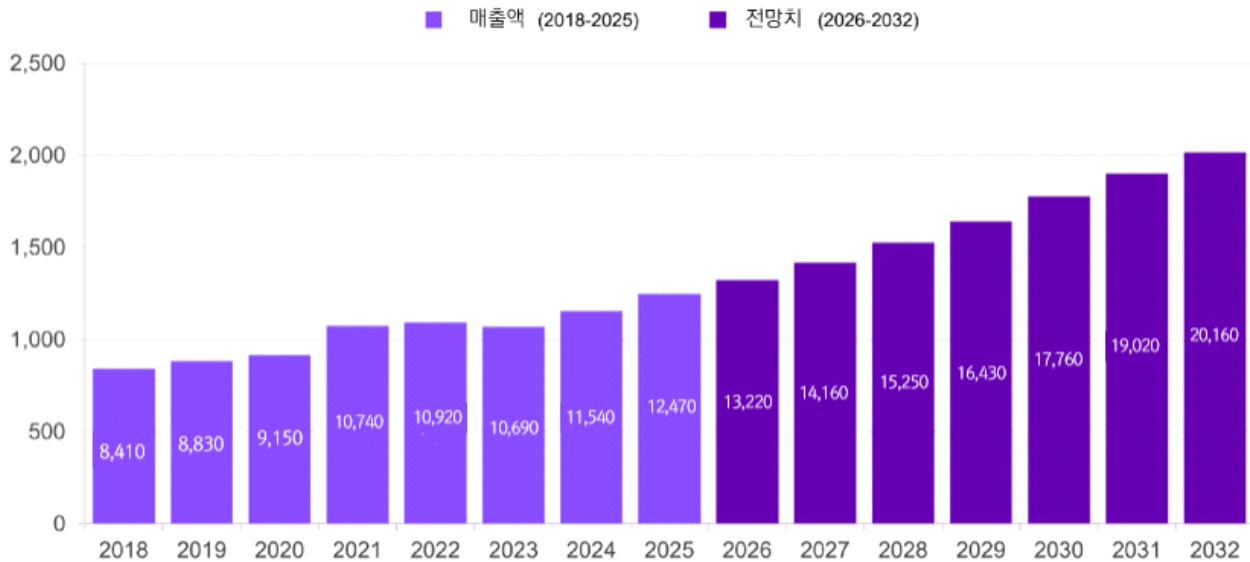
2026-2032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: 빅 드럭(Big drugs) 시대

2026.06.24. 한국바이오횰약품협회 산업정보팀

※ 해당 브리프는 'World Preview 2026: Big Drugs. Bigger Questions.' (Evaluate Pharma, 2026. 06.)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

글로벌 제약 시장 전망: 전문의약품 매출 2조 달러 돌파

-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은 비만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2032년까지 전 세계 전문의약품 매출액이 약 2조 달러(약 3,024조 원)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
-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(CAGR)은 7%를 상회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
- 특히 매출 상위 20개 제품이 전체 매출의 약 20%를 차지하는 '빅 드럭(Big Drugs)' 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양상임



글로벌 전문의약품 매출 추이 및 전망 (2018-2032) (단위: 억 달러)

| 시장 주도권의 변화: 비만·대사 질환 및 면역질환의 독주 |

- '역사상 최대 매출' 기록 경신: Eli Lilly의 tirzepatide
 - Eli Lilly의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성분인 tirzepatide('Mounjaro', 'Zepbound')는 2032년 매출액이 700억 달러(약 105조 원)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
 - 이는 과거의 휴미라('Humira')나 키트루다('Keytruda')는 물론, 코로나19 백신의 기록까지 경신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의약품이 될 것으로 평가됨

- Eli Lilly는 tirzepatide와 경구용 신약 'Foundayo' 등을 앞세워 2032년 연 매출 1,370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할 전망이다
- **자가면역 질환 및 항암제 시장의 지속 성장**
 - 비만 치료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 기회는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음. 건선/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AbbVie의 'Skyrizi'는 2032년 매출 330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매출 2위 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
 - 종양학 분야에서는 ADC(항체-약물 접합체) 시장의 확대로 Daiichi Sankyo/AstraZeneca의 'Enhertu'가 매출 순위 7위까지 상승하며 차세대 항암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

글로벌 매출 전망 상위 예상 의약품 Top 5 (2032년, 억 달러)

순위	제품명	기업명	주요 적응증	2032년 예상 매출액
1	Mounjaro/Zepbound	Eli Lilly	당뇨/비만	700억 달러 +
2	Skyrizi	AbbVie	건선/염증성 장질환	330억 달러 +
3	Keytruda (Qlex 포함)	Merck	고형암	300억 달러 +
4	Foundayo	Eli Lilly	비만(경구제)	250억 달러 +
5	Dupixent	Sanofi	아토피 피부염	200억 달러 +

| R&D 파이프라인 가치 분석: 차세대 블록버스터 후보군 |

-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중 가장 높은 순 현재 가치(NPV)*를 보유한 프로젝트들은 주로 비만 치료제와 범종양(Pan-cancer) 치료제에 집중됨
 - **Summit/Akeso의 'Idafang'(ivonescimab)**: 키트루다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PD-1과 VEGF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특이항체로, NPV가 250억 달러를 상회하며 파이프라인 가치 1위를 차지함
 - **Eli Lilly의 'Retatrutide'**: 'Triple-G'(삼중작용제) 작용 기전의 비만 신약으로, 230억 달러의 매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
 - **Amgen의 'MariTide'**: 월 1회 투여 제형 비만 치료제로, NPV 177억 달러를 기록 중임
- 그 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Immunovant/한올바이오파마의 'Imeroprubart'가 6위를 차지하였으며 해당 품목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한 차세대 FcRn(신생아Fc 수용체) 억제제 기반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으로, 169억 달러의 매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

*순 현재 가치(NPV, Net Present Value): 미래의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 총수익/손실 값(양수인 경우 창출될 예상 이익이 투자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, 음수인 경우 투자 비용보다 창출될 예상 이익이 작은 경우임)

순 현재 가치 상위 R&D 프로젝트 Top 10 (단위: 억 달러)

순위	품목명/프로젝트명	기업명	적응증	매출 전망('32년)	순 현재 가치(NPV)
1	Idafang* (ivonescimab)	Summit Therapeutics/ Akeso Pharma	종양학	85	252
2	Retatrutide	Eli Lilly	비만/당뇨	59	222

순위	품목명/프로젝트명	기업명	적응증	매출 전망('32년)	순 현재 가치(NPV)
3	MariTide*	Amgen	비만/당뇨	46	177
4	Giredestrant	Roche/ Chugai Therapeutics	종양학	43	176
5	Eloralintide	Eli Lilly	비만/당뇨	39	169
6	Imeroprubart*	Immunovant/ Roivant Sciences/ 한올바이오파마	자가면역질환	51	169
7	Daraxonrasib	Revolution Medicines/ Undisclosed Partner Sales	종양학	55	169
8	Povetacicept*	Vertex Pharmaceuticals/ Zai Lab/ Ono Pharmaceutical	자가면역질환	35	158
9	VAX-31*	Vaxcyte/ Sutro Biopharma	폐렴구균예방	48	154
10	Librexia	Bristol Myers Squibb/ Johnson & Johnson	Blood	36	150

*품목명 음영표시: 바이오의약품 (상위 10개 품목 중 바이오의약품 5개 품목)

| 산업 환경의 위기 요인: 특허 절벽과 규제 불확실성 |

• 거대한 '특허 절벽(Patent Cliff)'의 도래

- 2026년부터 2032년 사이 약 5,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경쟁 리스크에 노출됨
- 특허 Merck의 'Keytruda'와 AbbVie의 'Rinvoq', 'Skyrizi'가 향후 10년 내 가장 큰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,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격적인 M&A 행보가 지속될 전망이다

• 중국의 부상

- 글로벌 자산(asset) 공급원으로 중국이 급부상하며 2026년 글로벌 라이선싱 거래 금액의 2/3 이상이 중국 유래 자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
- 서구 제약사들이 중국 바이오텍으로부터 GLP-1, ADC(항체-약물 접합체), 이중특이항체 등을 적극 도입함에 따라 중국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
• 미국 약가 정책 및 FDA의 변화

-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'최혜국 대우(MFN, Most-Favored-Nation treatment) 약가 정책' 도입 가능성이 상존하며, 이는 글로벌 제약사의 수익성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
- 또한 FDA의 예산 감축 및 리더십 공백(FDA 국장 마티 마카리 및 고위 간부 사임, 2026년 5월)에 따른 규제 심사의 불확실성이 '뉴 노멀(New Normal)'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임

결론 및 시사점

- 2026년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은 비만 치료제의 폭발적 성장과 중국 바이오텍의 영향력 확대라는 흐름 속에 있음. 특히 주요 블록버스터의 특허 만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M&A와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
-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의 주요 타깃인 ADC, 이중특이항체, 경구용 비만 치료제 분야의 R&D 역량을 강화하고, 미국의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함과 동시에 특허 만료 이후 확대될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참고문헌

- World Preview 2026: Big Drugs. Bigger Questions.' (Evaluate Pharma, 2026.06.)
- Fraiser Kansteiner, Big obesity bets and China's rise fuel potential \$2T in 2032 drug sales: Evaluate (Fierce Pharma, 2026.06.23.)

※ 해당 브리프는 공개된 자료와 분석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한국바이오헬스산업협회의 공식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문서는 아님을 밝히며 해당 자료를 인용할 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문의사항

담당부서: 한국바이오헬스산업협회 산업정보팀 | Tel: 02-725-8435 | E-mail: bpis@kobia.kr